

게시판



사람 생태안내자 교육 사람생태연구소는 사람 생태안내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사진). 사람생태 홍보와 모니터링, 교육 등 3개분야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5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21명을 접수한다. (02)745-5812

학술연구논문 공모 전주산악대 청담사상연구소는 청담 스님의 인유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 (055)751-3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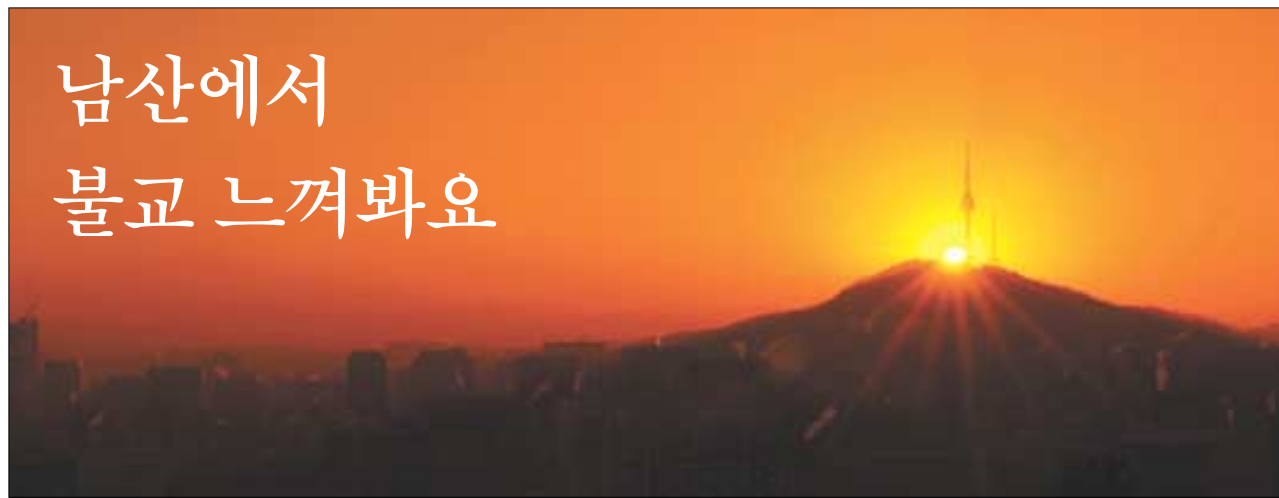
실버미팅 개최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5월 7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독신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제2회 '청춘을 돌려다오' 실버미팅을 개최한다. (02)466-6242

롯데월드 불교체험마당 불광사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불교체험마당을 마련한다. 연등과 장엄등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컵등 만들기 시연, 탁본 체험, 다도 시연 및 시음행사, 꽃꽂이 전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02)413-6060

명상과 자기치유 프로그램 전현수(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은 5월 4일~6월 22일 서울 구룡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을 연다.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부속병원 존 카밧진 교수가 고안한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이완 프로그램'으로, 출·재가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02)400-2911

20면 상식 퍼즐 정답

보	릿	고	개	개	각
현	래	해	골		
행		만	적	의	난
원	적	외	선	사	망
	도				
	마	이	동	풍	나
		사	문	의	한



남산에서 불교 느껴봐요

스나루, 서울타워, 동·식물원, 케이볼카, 한옥마을. 이것들의 공통점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바로 남산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아마도 전국민들이 동의하는 사항일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서울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 또 남산이다. 봉화(烽火)를 피워 올리던 봉수대가 있는 곳이고, 현대사에서는 '인기부'를 상징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자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세상에 부처님이란 개념이 없다고 하듯이 남산에도 불교가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림학교인 동국대가 있고, 대원 정경호 거사가 설립한 대원불교대학이 있다. 그리고 매년 봉축기간 장충공원을 장식하는 '자비의 등'도 있다. 불자의 눈으로 남산에 한번 올라보자.

남산을 휘감는 '자비의 등' - 연등 5000개 장충공원 밝힌다



장충공원을 비추고 있는 연등.

남산의 봄은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하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웅)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4월 23일부터 장충공원에 '자비의 등'을 달고 있다. 5000개의 연등이 장충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 휴일에 장충공원을 방문하면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할

필 수 있는 자비의 축제로도 동참할 수 있다. 신선한 봄바람을 맞으며 연등을 따라 산책하는 것에서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도 5월 3일부터 등을 밝힌다. 온 교내에 설치된 등은 젊음이 넘치는 대학 캠퍼

스를 보다 맛있게 해준다. 후암동에 위치한 대원불교대학과 한옥마을 바로 앞에 자리한 총장사도 주변에 연등을 설치해 세상을 자비롭게 비추고 있다. 5월 부처님의 달에는 남산에서 불심을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태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 울타리 없는 길~산책로

남산의 변화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순환도로가 산책길로 바뀐다는 것이다. 1991년 6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북측 순환도로(국립극장-소파길)에 이어 남측순환도로(국립극장-남산도서관)도 5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산책로로만 이용된다. 대신 남산에 오를 때는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순환버스는 충무로역-동대입구역-국립극장-서울타워-남산도서관-서울에니메이션센터-충무로역

을 돌며 이용객들을 안내한다. 울타리도 없어진다. 1968년 남산을 둘러쳐진 25.9km의 철제 울타리 중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14km가 철거된다. 남산에 사는 동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더 안정된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75년 문을 연 서울타워도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불거리 풍성 - 한옥마을 외국인에 인기

그래도 꽃들이 만발하는 산책로와 어린이들의 '필수 코스' 동·식물원, 케이볼카, 안중근 의사기념관 등은 여전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사진)은 외국인들에게도 각광받는 명소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문화행사가 계속되고 있어 가족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문입구에서는 연극, 춤 등이 상설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마도위 박영호의 가옥 등 한옥 5개동이 최근 복원돼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의 가옥 양식과 생활방식을 한 자리에 서느낄 수도 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nia.com



전국 서점 50곳 '불서 전시회' 40권 선정... 염주 등 사은품 제공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불서 특별전'이 열린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50여 서점에서 '부처님오신날 특별 도서전'을 개최한다. 불출협은 서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 별로 선정된 서점에 별도 부스를 설치하고 불서 40여권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불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염주와 연꽃 차 걸이 장식품 등의 사은품도 제공한다. 도서전에 출품되는 불서는 불교계 출판사와 일반 출판사가 발

간한 불교서적 중 출판사의 추천을 받은 책을 권역 선정할 것이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에세이, 법문집, 수행 지침서 등이 주류를 이룬다. 불출협 윤창화 부회장(민족사 대표)은 '불교계 출판사들이 발간하는 불서의 경우 발행 부수도 적고 유통상의 문제로 지방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지역 불자들과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양질의 불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불교방송 봄철 프로그램 개편

5월 2일, 음악 프로그램 강화...11개 신설

불교방송이 5월 2일부터 봄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신설 프로그램은 청소년 음악 프로그램 '뮤직플러스'와 소외계층의 삶을 조명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등 11개 프로그램이다. 이번 봄철 프로그램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음악프로그램 강화. 매주 월-일요일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음악 프로그램 '뮤직플러스'는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그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일요일 시간대에는 지난 개편 때 폐지됐던 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삶을 조명해 보는 '사랑의 징검다리'일, 오전 7시 5분'가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편성됐다. 이 밖에 일요일 오후 6시 15분

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불교사상과 법제, 찬불가 등을 알기 쉽게 전해주는 '불교음악의 세계'가 새롭게 선보인다. 탤런트 김혜옥씨가 진행하는 '우리 오늘 기쁜날(월-일요일 오전 11시 5분)'은 신형상담과 함께 불자 예술인을 초대하는 코너 등이 마련돼 있다. 시간대를 옮긴 프로그램은 '음악의 마을(오후 2시 5분에서 오후 3시)' '급강경 특송(아침 7시 5분에서 아침 6시 25분)' '성전 스님의 행복한 미소(밤 10시 50분에서 밤 9시 5분)' '효 음악회(5월 8일 오후 2시 5분)' '마포 라이브 카페(5월 1일 오후 12시 10분)' '천국사산 사음악회(5월 1일 저녁 8시 5분)' '트롯, 트롯, 트롯, 아! 트롯(5월 1일 저녁 7시)'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5월 1일 밤 10시 5분)' 등의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nia.com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 폴리네시아민속춤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아일라나 공전 탐방.
- 역사체험 - 한인 이민의 역사를 사랑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 와이키키 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에 탐험, 크루저여행, 잠수함 및 오프어형.

*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아공원 원주민 체험, 쿠할로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 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687-583 예금주: 김원우



전시

구슬로 엮은 한쪽의 동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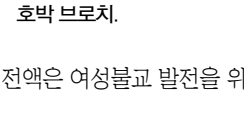
김인숙 원장 목걸이 전시회 '구슬꽃 이야기'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국민대 명예교수·사진) 원장이 5월 6일부터 15일까지 평창동 가나포럼스페이스 1층에서 '구슬꽃 이야기' 목걸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목걸이, 귀걸이와 브로치 1500여점은 모두 김 원장이 직접 만든 것이다. 특히 꽃과 나비, 새, 박쥐 등 전통적인 동양화에 나오는 소재들을 장신구에 응용해 한 점 한 점에서 동양의 미가 느껴진다. 수익금 전액은 여성불교 발전을 위해 회사할 계획이다. (02) 720-1020

이은비 기자 reny@buddhania.com



호박 브로치.

생활속에 꽃핀 연꽃예술

경기 호암미술관 10월 16일까지 '연꽃' 전



'수련도 십곡병' 일부.

경기도 호암미술관이 10월 16일까지 '연꽃'전을 연다. 불교미술과 도자기, 서화, 각종 생활 용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연꽃을 주제로 한 작품이 총 74점 출품된다.

연꽃 대화가 돋보이는 국보 128호 '금동 관음보살 입상', 불교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한 국보 234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 불상·불화를 포함해 풍탁·반자 등의 불구(佛具)가 진열대에 오른다.

연꽃 모양의 나전 일주반(一柱半) 등 연꽃을 형상화한 민속용품도 만날 수 있다. (031)320-1801

강신재 기자 thaiswhy@buddhania.com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클릭!
불교문화상품

봉축카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과 친구 등에게 불심(佛心)을 담은 카드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릴 수 있는 봉축카드가 나왔다. 10개 1세트에 6000원인 봉축카드에는 20세트 이상 구입시 단체명 인쇄도 가능하다.(02)732-3520